



'자전거'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흥길동' 연습 모습.



무심한 사물들에 디자인을 입히다

김남훈 조선대 미대학장 첫 개인전, 26일까지 금호갤러리 화장품 용기, 디자인비엔날레 쓰레기봉투 디자인도 진행



베네통 화장품



창정원 식용유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기간 광주 5개 구청이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예술 옷'을 갈아 입는다. 북구 지역 쓰레기 봉투에는 펭귄과 코끼리 등이 새겨지고, 남구 지역 봉투에는 흙과 잔디, 새싹 등이 입혀진다. 광산구 봉투에는 기차 창문가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진다. 디자인 아이디어는 모두 김남훈 조선대 학장이 내놓았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입혀지는 디자인보다 그 이유가 더 재미있다. "북구에는 동물원이 있어서 동물들의 이미지를 가져왔고, 남구는 농토가 많아 새싹들을 떠올렸습니다. 광산구에는 송정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기차의 일부분을 따왔고, 쓰레기 봉투를 모아 놓으면 기차 한 대가 완성되죠."

김 학장은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쓰레기봉투 디자인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9개 쌀 브랜드의 새로운 포장 디자인도 선보인다.

김 학장은 지난 30여년 간 국내 디자인계를 주도해온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조선대를 졸업하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했다.

1990년에는 씨디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해 이탈리아 베네통화장품 용기 디자인 등을 비롯해 다수의 글로벌 디자인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도 청정원 '햇살담은 간장', '참빛고 운식용유' 등을 비롯해 파비안느 바디화장품, 에뛰드화장품, 에다손 등의 용기·브랜드·포장 디자인을 개발했다.

그런 그가 오는 26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 2관에서 '문화의 시각적 재구성'을 주제로 생애 첫 개인전을 연다. 30여년 디자인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디자인 인생을 설계하는 자리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생활이나 여행을 통해 보고 느꼈던 우연성이 강한 문화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해석,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타임스퀘어, 풍피두센터, 스타벅스, 하네 다공항 등 여행하면서 만난 조형물이나 장소는 물론 종이컵, 자전거, 타이어, 핸드백, 티셔츠, 꽃병 등 지극히 일상적 사물이 갖는 표현성을 다양한 색상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해석해 전혀 다른 이미지를 선사한다.

김 학장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사물이 지니는 다양한 조형성과 컬러를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여 밝고 차별화된 문화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역점을 뒀다.

김 학장은 "그동안 수많은 디자인 작업을 해왔지만, 막상 나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발표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된다"며 "시각디자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느낌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새롭게 표현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재)광주비엔날레 이사, (재)광주디자인센터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차별 없는 세상 "내가 흥길동이다"

난세를 극복하고 차별 없는 새 세상을 만들었던 영웅 흥길동의 활약을 담은 '창극 흥길동'이 무대에 오른다.

전남도립국악단은 23일 오후 7시30분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2013년 특별 기획공연 '창극 흥길동'을 초연한다.

'창극 흥길동'은 흥길동이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활빈당을 조직해 이상향인 율도국을 건설해 서민들의 영웅이 돼 가는 과정을 입체적인 영상과 특수효과를 활용해 역동적 무대로 담아냈다.

도립국악단원과 객원연기자 100여명이 출연해 총 8장에 걸쳐 90분동안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흥길동' 초연... 내일 여수 예술마루

공연은 예술총감독에 박승희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연출 김지영씨, 대본은 오페라 전문 극본작가인 이강윤씨, 안무 뮤지컬 전문가 김종일씨, 작곡 및 작창은 황호준씨가 맡았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18세 이하 청소년·1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전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061-280-5824) 전남도립국악단(061-375-6928).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복절 '체 게바라 옷' 30일 징계위원회

문화단체 반발 속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징계여부 결정

광주시가 광복절 경축식 때 합창단원에게 체 게바라 얼굴이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하도록 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모(여·37) 지휘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징계위원회에는 김상호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박광석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총무과장, 외부인사 1명 등 모두 5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광주시는 "국가 기념행사에서 사회주의 혁명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문화·사회 단체 등이 광주시의 징계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징계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은 21일 "체 게바라 초상은 전세계 주요 문화상품과, 디자인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며 전기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도 있다"며 "문화적 아이콘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공연한 것을 이념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광주시 문화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휘자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징계여부, 수위 등은 징계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징계위원들이 다양한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돈과 여성 인권-여성의 상품화'

광주여성재단 27일 인문학강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8월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채연(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돈과 여성 인권-여성의 상품화'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 교수는 여성의 상품화는 자발적인가 혹은 강제적인가, 여성차별이 없어지면 여성의 상품화도 없어질까, 인간의 상품화는 노예화와 어떻게 다른가 등 돈과 여성인권의 관계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낸다.

광주여성재단 인문학 강좌는 '돈'을 주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62-670-054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피로연, 칠수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안비)

YONAMJA 유·스퀘어점

<p>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p>	<p>봉골레 Yongole ₩10,800</p>	<p>밀리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p>	
<p>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p>	<p>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p>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